

지 상 범 석

“보살이지요” 답하세요

“우리는 중생 건지려 사바에 온 願生 미운사람·가난한 사람부터 건지십시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눈을 번쩍 뜨고 의욕하고 하면서도 부처님께서 이미 2천5백년전에 하신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단편을 파운 셈이지요. 나는 12년 전에 『법화경 입문』이라는 책을 범우출판사에서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불교’라고 정의하면서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 범우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책을 사서 펼쳐 들고 해인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과거-인간이 아직 무생물이었을때, 혹은 아메바와 같은 흙세포(單細胞)의 생물이었던 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부터 자기의 몸중에 집착하여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온 의식을 말합니다.

이런 의식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및 무생물까지도 통 털어서 말하므로 여기에 놀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했거나, 느꼈거나, 말한 것, 몸으로 한 행위 등 모든 경험을 모두 남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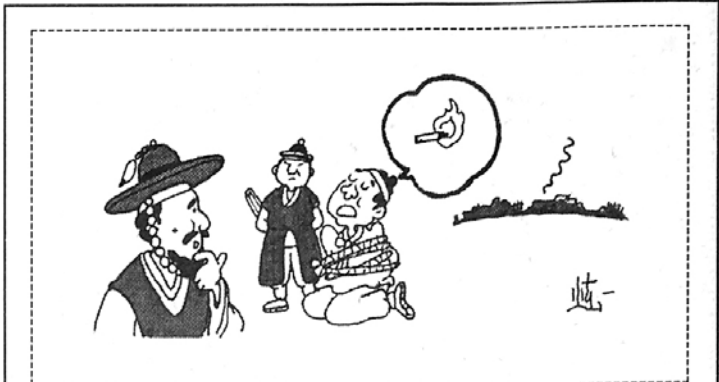
이지요. 이것은 앞서 말한 말나식의 아집이 이렇게 시킨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남김없이 또 그 말나식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습(習)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을 우리는 무명(無名)이라 하며 무명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즉 무지(無知)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지의 행(行)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습이 된 것이며 습 때문에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없는 것은 있다고 보는 착각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사물은 실체(實體)가 없는 공성(空性)인데도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야부(般若部)의 모든 경전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소 장차 자기도 장성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菩薩)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기가 누군지 줄 알게된 것이니 이 순간부터 누가 물기를 ‘당신은 누구냐’하면 즉시 ‘보살이지요’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공부만 했을 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에 머물렀을 뿐 보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나와는 아득히 먼 곳에 계신 줄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킨 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만 이제는 부처님 앞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는 말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은 불자 즉 부처님의 아들이 보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하든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 몸뚱이에 치장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는 그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바 세계에 온 것임을 알았을 것



반야심경은 부처의 차원에서 본 진리를 설한 것이다. 반면에 물리학은 오관으로 인식하고 분별지로 판단하는 보통사람들이 물질계를 탐구하여 이러한 학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물리학을

집의 지붕위에 불을 질렀다. 이 불씨가 지라나 마을을 다 태운 후 방화범이 붙잡혀 재판 받게 되는데 이 방화범은 무죄를 주장한다. 자기가 가져온 것은 작은 불씨이고 마을을 태운 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불씨가 자라나서 즉 번하여 마을을 태운 불이 된 것이니 사람이 범인이라는 판결을 경전은 내리고 있다. 옳은 판결이다. 물리학에서도 이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갈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으로 관철한다. 물질을 이루는 소립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소립자가 다른 소립자와 힘을 주고 받는 기본 상호작용이 네가지가 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한가지 종류의 소립자가 여러가지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인식능력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다. 그래서 시도를 할 때 지금까지 말해온 ‘반야’를 통해서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심경의 물리학적 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김성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55

물리학적 ‘심경’ 접근 경전 이해 도와 ‘반야의 세계’ 이해차원 넘어 ‘믿음’ 중요

‘인내’에 몰입하여 경전의 내용을 훼손치 않았는지 모르겠다.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나의 예로 중회의 문제를 들 수가 있다. 이글의 첫머리에서 ‘사람과 돼지는 같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는데 글을 마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기도 하자. 같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연필을 예로 들었다. 학생위에 놓여있는 연필과 이 연필이 학생의 손안에 들어 글씨를 쓰고 있을때 두 연필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르지만 이것을 책임위에 놓으면 저것이고 저것을 들면 이것이다. 즉 저것이 변하여 이것이 되는 과정을 다 살펴서 알 수 있으면 저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 변하는 과정을 모를 때 우리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고 한다. 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합쳐지거나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는 불생불멸의 원리에 의해 생긴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다. (미란다원문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한 방화범이 작은 불씨를 가져와 어느

“잘못된 ‘習’ 버리고 또 버려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말나식에 붙은 ‘아집’ 이 미혹·번뇌 일으키는 뿌리

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니 불교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너 주재나 파악하라’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참으로 몰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휘어 꺾여지게 보도록 길들어 왔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전도(顛倒)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휘어 꺾여지게 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8식(八識)이라 생각합니다. 8식이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6식(六識)에 말나식과 아뢰아식을 더한 여덟가지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처음의 5식(五識)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에 의해 외계(外界)의 사물을 분별해 아는 마음이며 의(意)란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하자’ ‘이것은 하지 말라’ 등 순순하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작용입니다. 이상의 6식은 무대 위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들이 분명히 볼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나식이란 무대 뒤에 있는 마음으로서 우리들이 그것이 있는 줄 모르

없이 기억하고 있다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이란 조상 대대로 경험한 것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도마뱀은 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지도 않는데도 여전히 기분이 나쁘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몇 만년 전에 그러한 거대한 파충류가 지구상에 만연하여 인간의 조상이 그들에게 과물함을 당한 기억이 우리들의 잠재의식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벌레인데 물고기이든 새든 들짐승일지라도 모두 자기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자기들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본위의 행위나 또 어떤 잔인한 행위도 태연히 행합니다. 남이 모아 놓은 먹이를 가로채기도 하고 암컷을 빼앗기 위해 투쟁을 하기도하며 곁에 가서는 동료를 죽이기도 합니다. 두견새처럼 꼬꼬리 알을 동지에서 밀어내고 그것이 자기의 알을 낳고 꼬꼬리의 어미에게 키우도록 하는 알미운 일마저 서슴치 않습니다. 우리들도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의 약 3억년 동안 계속 이러한 일을 해 왔던 것

사물은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니 이에 집착하지 말라.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인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지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믿어야만 구제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되는 것도 나로 구제받는 것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몸뚱이는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참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佛子)임을 믿어야 합니다. 즉 부처님의 아들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길에다 내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몸뚱이 즉 육체의 아버지는 일시적인 아버지요 진정으로 영원한 아버지는 부처님이라는 이 믿기 어려운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믿음으로써 비로

“부처님 가르침 읽고 외우기만 할것이 아니라 묵숨겨는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입니다. 즉 여러분은 중생을 건지기 위해 이 사바 세계에 지원(志願)해서 태어난 분들이니 여러분은 중생이 아니라 원생(願生)입니다. 가족을 건지고 이웃을 건지고 고은 사람보다 미운 사람부터 건지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부터 건지는 부처님의 큰 자비를 실천하는 대행자(代行者)들입니다. 글로 불경에서 당시(當知) 즉 마땅히 알아라 하는 말은 바로 꼭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숨을 걸고 믿어야만 합니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的 佛塔다라니”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 지세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심신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방출되면, 약해진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세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기(氣)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원도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저자가 원하는 간절히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조상님의 영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현재 살고 있는 방법은 낡은 것인지? 언제까지 아를 낳는지? 등 어떠한 일이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 적어 놓고 기(氣)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기(氣)가 나오면 성공률(80~90%)는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많은 운강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세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인간의 몸체 병되고, 원인과과를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있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류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거나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 테스트 방법과 처방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기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가와 재산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하기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스나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 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알고 되며 스님을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